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 | 롯데건설

도시정비사업의 명가 롯데건설 부산 서금사A구역 재개발 수주

약 7만2051m²·13개동 2368세대 초대형 단지

롯데건설이 최근 부산 동래구에서 열린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일대 약 7만2051m² 부지에 조성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3개 동, 2368세대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다. 공사비는 8103억 원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금정구 최고의 명품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단지명을 ‘프레스티아 캐슬’로 제한한 롯데건설은 부산 남천 삼익비치와 시민공원 촉진3구역 등의 외관설계를 맡은바 있는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SMDP와 협업해 이 단지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3조 5509억 원을 기록했다. 총 10곳 가운데 7곳이 서울권으로 상반기 업계 1위인 2조96억 원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올해 하반기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 2구역 재개발 수주에도 나선다. 한남2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8만2821m² 부지에 지하 6층~지하 14층, 31개 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아파트보다 톡톡한’ 주거형 오피스텔 뜬다

전용면적 84m² 10개 타입 400실
청약통장 없이 100% 청약제 진행
동탄여울공원 인접 주거여건 쾌적
수도권 최대 산업도시로 가치 높아

아파트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톡톡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9월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인근에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150만 m² 규모의 중심 상업·업무지역에 조성 중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초고층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급될 때마다 청약자가 크게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단지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m² 위주의 400실로 구성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 10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최상층은 전용면적 84m² 및 107m² 타입 각각 2개실씩 다락형 펜트하우스로 꾸며진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청약통장 없이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해 누구나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힐스테이트의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한 단지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서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동탄 1, 2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 산업도시이자 경기 남부권 광역 교통허브로 개발 진행 중이어서 향후 부동산 미래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동탄역까지 지리상으로 직선거리 약 500m로 가깝지만 동탄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현재는 걸어서 이용이 불편하다.

그러나 오는 2023년 말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따른 동탄2신도시 관통 구간이 지하화되면 지상부에는 공원 등이 조성돼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진다. 또한 동서를 연결하는 6개 도로도 놓일 예정이어서 주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동탄역은 이미 운행 중인 수서고속철도(SRT)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지하철, 트램, 버스정류장 등이 들어서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 개발 중이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입주자들은 인근 산업단지 및 강남 분당 판교 팽목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춰 단지 서측으로 약 32만 m²에 다양한 체육시설, 국제작가정원, 음악분수 등으로 조성된 동탄여울공원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예비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의 평면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설계했다. 모든 세대를 남측향 위주로 배치하



현대건설이 동탄역 인근에 선보이는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등 다양한 미래가치가 입주시점인 2026년에 대부분 가시화된다”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확실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제공 | 현대건설

장 등이 들어서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 개발 중이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입주자들은 인근 산업단지 및 강남 분당 판교 팽목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춰 단지 서측으로 약 32만 m²에 다양한 체육시설, 국제작가정원, 음악분수 등으로 조성된 동탄여울공원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예비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의 평면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설계했다. 모든 세대를 남측향 위주로 배치하

고 환기에 유리한 맞통풍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또한 전 세대 테라스(2개실 제외)가 제공된다.

수요자 생활패턴에 따라 일반타입 및 거실 강화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타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베이 맞통풍 구조이며, 거실 폭을 늘려 강조한 거실 강화타입은 3베이 구조이다. 최상층 펜트타입은 다락을 포함한 복층형 구조로 구성된다. 빌트인가전기기(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기능성오븐, 에어드레서, 슈드레서 등)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계약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DL이앤씨, 협력사 대상 건설대학원 경영자 과정 개설

DL이앤씨가 업계 최초로 협력회사를 위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한다. 최근 중앙대와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을 개설했다.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9월부터 12월까지 15주 동안 중앙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 과정에는 DL이앤씨의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한솔 파타너스 등 20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 입학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DL이앤씨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국내 최대 불링장 토목공사 마친 세움산업개발, 이번엔 “나 홀로 아파트”

대단지보다 주택 구매 자금 저렴해
미래 투자가치 높은 사업으로 평가

2016년 설립된 ㈜세움산업개발(대표 안종모)은 창사 이래 토목과 건축사업영역에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12월 시작해 얼마 전 공사를 끝낸 대구 연경지구 내 불링장 토목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링장 토목공사로 기록될 정도로 경험과 실력에서 경쟁력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군 광명대 출신으로 자재 중장비를 운영하며 건설 현장에서 속도감있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안종모 대표의 의지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소규모 개인 주택공사와 대형 토목공사 대행업에서 시작한 안대표는 끊임없이 시장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사람과 기술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과감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세움산업개발은 고객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기초에서부터 마감까지 완벽하게 안전한 건축물을 건설해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고객과 소통하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을 위해 품질과 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다.

현재 구미, 칠곡, 대구, 서울, 진주 등에

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움산업개발은 최근 ‘나 홀로 아파트’를 계획 중이다. 주택구매 자금이 대단지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해 같은 조건의 교통,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나 홀로 아파트’는 자산가치 상승 폭이 크고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주변 주택지역과 함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종모 대표는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주어진 공간에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건설업체가 되려고 노력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소하게 문힐



세움산업개발 안종모 대표. 사진제공 | 세움산업개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주는 것으로,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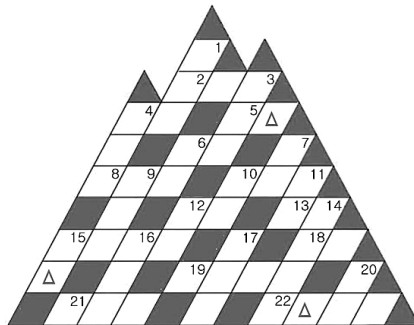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9		8				2		1
			9		7			
7			8		3			6
	6	9		7		1	8	
			1		9			
	1	5		3		7	9	
5			7		1			9
			2		5			
2		4				5		7

■ 스도쿠정답

9	1	5	8	9	6	2	7	3
8	8	7	9	6	2	9	1	4
6	2	9	1	7	1	8	8	5
7	6	1	2	8	9	5	1	8
5	9	8	6	8	1	2	2	7
2	8	1	7	1	5	6	9	8
8	9	8	1	6	2	7	9	
1	1	2	9	5	7	8	8	6
6	8	7	8	9	2	5	1	1
2	9	9	1	1	7	8	8	6
1	1	8	8	5	6	2	9	7
9	7	1	2	8	8	1	6	5
5	6	2	7	1	9	1	8	8
8	1	8	9	6	1	7	2	9
8	2	6	1	7	8	9	9	1
1	9	5	6	8	1	8	7	2
7	8	1	9	2	5	6	1	8

■ 낱말문제



■가로 열쇠 02.먹을 수 있거나 유용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 04.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05.짚을 말라서 켠 말·소의 막이. 06.신의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 08.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을 구입하여 읽는 사람. 10.고래를 잡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갖춘 배. 12.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13.활·로켓이나 광선·음파를 쏘는 일. 15.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 18.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함. 19.아침하며 윗사람에게 잘보이려는 행위를 가리킴. 21.병충해 방제로 소독약을 살포하는 기계. 22.매무시를 바로 하고 단정하게 앉음.

■세로 열쇠 01.휘발유 등을 자동차에 주입하는 곳. 03.꿀벌의 암컷. 04.몸치장 하는 데 쓰는 물건. 08.걸터앉는 데 쓰는 기구. 07.주로 얼굴을 비추어 보는 작은 거울. 09.남을 위한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10.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11.많은 가운데서 골라 뽑음. 12.뿔밖의 긴급한 사태. 14.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15.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 16.수줍거나 무안하여 붉어진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어금니가 다 난 뒤 성년기에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어금니. 20.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피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산 이름 됩니다.

